

# 경제

## 2017년 경제동향

### ■ 개황

2017년 우리 경제는 중국 등과의 통상 마찰, 북한 리스크, 구조조정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경제 회복, 추경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3년 만에 3%대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세계 경제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성장세가 이어졌다. 선진국은 미국과 유로 지역이 내수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신흥국은 중국과 아세안 5개국 이 소비와 수출 호조로 성장세를 이어갔고, 브라질과 러시아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인 3천739억 달러로 2016년 대비 15.8%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시장 호조로 크게 증가했고, 선박과 석유류 등 대부분 주력 품목들도 증가했다. 경상수지는 중국 관광객 감소 여파로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확대돼 2016년보다 낮은 78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7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기상 악화 및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2016년보다 1.9% 상승했다. 다만 근원물가는 국내 경기의 회복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1%대의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

고용의 경우 건설 경기 호조, 일자리 중심의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취업자 수가 32만 명 증가했으며, 고용률(15~64세 기준)은 역대 최고치인 66.6%를 기록했다. 명목임금은 기업구조조정과 일부 대형 제조업체의 임금협상 타결 지연 등의 영향으로 상용근로자 임금이 크게 줄어 2016년보다 낮은 2.6% 상승했다.

2017년 금융시장은 금리와 주가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금리는 하반기 이후 국내외 통화정책기조 정상화 가능성으로 큰 폭 상승했으나, 11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주가는 상반기 중 국내외 경제지표가 개선됨에 따라 2016년 연말보다 크게 상승했다.

다만 3분기 북한 리스크와 연말 차익실현 등으로 약세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국내경기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11월 중 1.25%에서 1.5%로 6년 5개월 만에 인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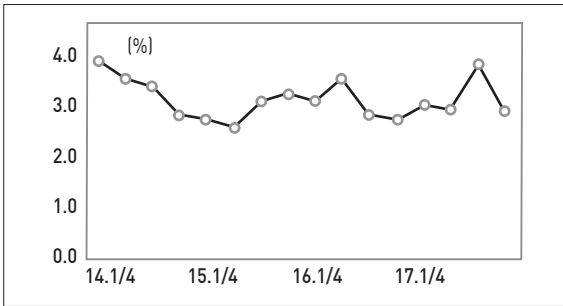
금융기관 기업대출은 경기회복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으며, 가계대출은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대책, 아파트 준공에 따른 중도금 상환, 신규분양 축소 등에 따라 증가 폭이 축소됐다.

원/달러 환율은 연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 수출 호조,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3월 말까지는 하락하다 북한 리스크와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10월 이후에는 양호한 성장세와 북한 리스크 완화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연말에는 1,070.5원을 기록했다. 원/엔 환율은 등락을 지속하다 10월 들어 원화 강세로 하락세를 보이며 2016년 말 대비 하락했다.

### ■ 성장

2017년 우리 경제는 2016년 대비 3.1% 성장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3분기 들어 세계 경제 회복과 추경 효과 등에 힘입어 전기 대비 1.4%, 2016년 동기 대비 3.8% 성장하는 등 큰 폭으로 개선됐다. 4분기에는 3분기 호조와 10월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다소 조정을 받았다.

## GDP 성장경로(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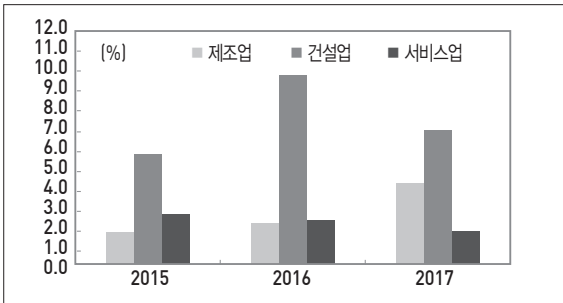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산업별로는 제조업 성장세가 확대되고 건설업 호조가 이어졌지만, 서비스업은 부진했다. 제조업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4.4% 성장하며 2016년 대비 성장 폭이 커졌다. 건설업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7.1% 성장했다. 농림어업은 수산양식 확대 등에 힘입어 소폭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서비스업은 2016년보다 소폭 낮아진 2.1% 성장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이 둔화했기 때문에 분석됐다.

지출부문별로 보면 최종소비는 정부소비 증가율이 둔화했으나 민간소비 개선 흐름이 이어지며 2016년 대비 2.8%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물가오름세 확대에 따른 실질구매력 제약 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일자리 추경 등을 비롯한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2.6%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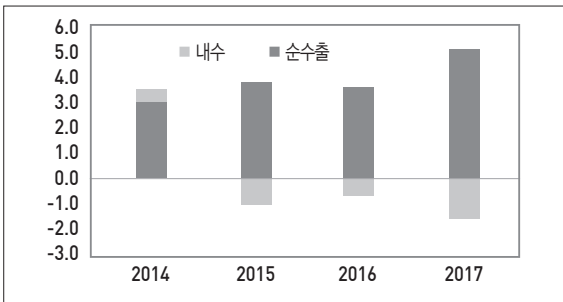
건설 투자의 경우 토목건설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조정 등으로 부진이 지속됐으나, 건물 건설이 양호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

## 산업별 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

## 내수·순수출 성장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7.6% 늘었다. 설비 투자는 IT부문 투자가 크게 늘면서 14.5%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 등으로 기계류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운송장비 투자는 선박 투자 감소 등으로 부진했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도 주요 IT기업의 R&D 투자를 중심으로 3.0% 증가했다.

기여도 측면에서는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2016년 3.5%포인트에서 4.7%포인트로 크게 증가했으나, 순수출의 마이너스 기여도는 0.6%포인트에서 1.7%포인트로 확대되는 등 내수가 성장을 보완하는 모습을 보였다.

## 수출

2017년 수출은 5천739억 달러로 2016년 대비 15.8% 증가했다. 세계 경제 회복과 글로벌 IT 업황 호조 등에 힘입어 반도체 등 IT 제품 수출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국가별 세계 수출 순위는 2016년 8위에서 6위로 두 단계 상승했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역대 최대인 3.6%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958억 달러 흑자로 2016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OLED 등이 글로벌 시장 호조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석유제품과 철강 등도 물량과 단가 모두 개선되면서 호조를 보였다. 다만 무선통신기기는 해외생산 확대 및 경쟁심화로, 자동차는 부품수출 부진으로 각각 감소세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중동을 제외하고 중국, 일본, 아세안, EU, 미국 등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대(對)중국 수출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통상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중간재를 중심으로 14.2% 늘었다. 대미 수출은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에너지 수요로 석유제품 수출이 크게 늘어나며 3.2% 증가했다. 대일 수출도 도쿄 올림픽 특수 등으로 철강수출이 확대되며 10.1% 늘었다. 점유율 측면에서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2016년 대비 1.7%포인트 하락하고, 아세안과 중남미 등으로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수출시장이 다변화했다.

수입은 4천781억 달러로 2016년 대비 17.7% 증가했다. 자본재 수입이 반도체 생산설비 등 투자 확대로 33.2% 늘었으며, 중간재 수입도 수출 호조에 힘입어 11.9% 증가했다. 다만 소비재의 경우 경기회복에도 주요 품목에 대한 수요 부진으로 2016년 대비 0.2% 감소했다.

## 고용

2017년 연간 취업자 수는 주택건설 호조, 수출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며 32만 명 늘었다. 하반기에

### 연령별 취업자 증감

(단위 :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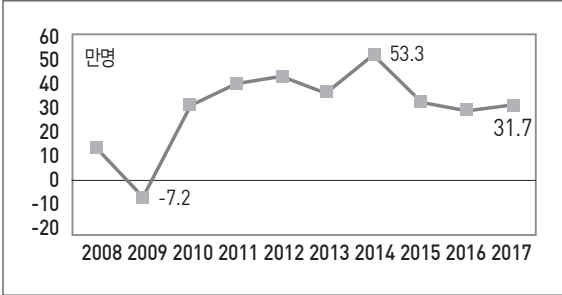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15~29세	6.8	4.8	-1.2
30~39세	-3.8	-3.6	-0.6
40~49세	-1.4	-2.9	-5.4
50~59세	14.9	9.2	13.5
60세 이상	17.2	22.3	25.4

**연령별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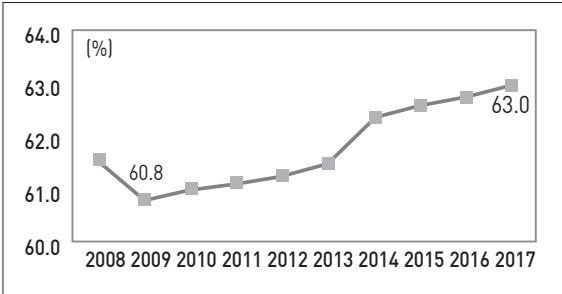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15~29세	41.5	42.3	42.5
30~39세	74.2	74.6	75.3
40~49세	79.1	79.2	79.4
50~59세	74.4	74.4	75.4
60세 이상	38.9	39.3	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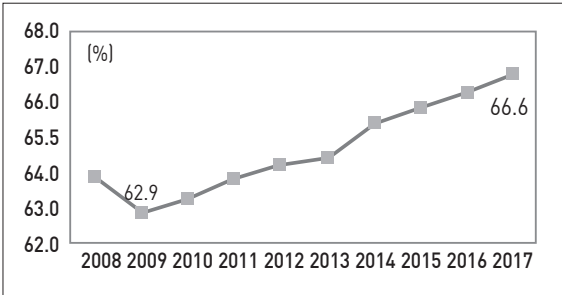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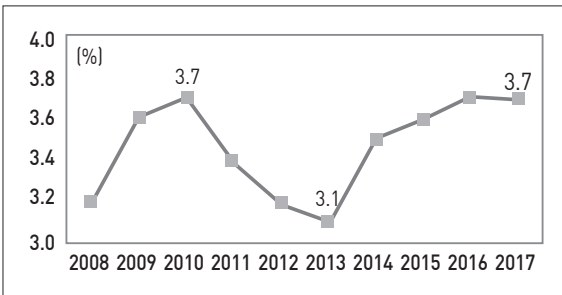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15~64세 기준)**



**실업률**



는 관광객 감소와 자영업 경쟁 심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률(5~64세 기준)은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취업자 증가세 확대 등으로 역대 최고치인 66.6%를 기록하는 등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실업률은 2016년 수준인 3.7%를 유지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63.2%로 소폭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 장년층이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한 가운데 60세 이상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다. 핵심 연령대인 30~40대는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 고용률은 인구 감소 효과 등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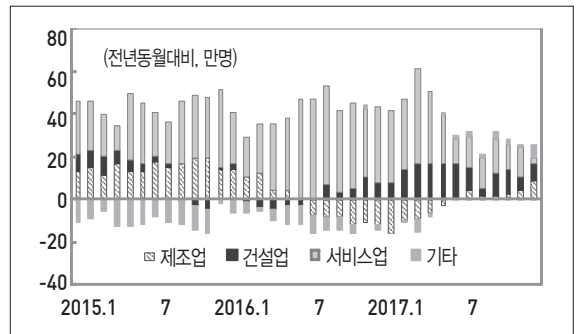
산업별 고용 추이를 보면 건설업은 2015~2016년 아파트 분양 호조에 따른 준공 물량 확대 등으로 취업자가 2016년보다 11만5천 명 증가했다. 제조업은 취업자 수가 1만2천 명 감소하는 등 2016년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생산 회복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등의 영향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은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한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이 누적됨에 따라 2016년보다 낮은 수준인 20만6천 명 증가했다. 세부업종으로는 보건복지·교육·공공행정의 경우 취업자 증가세가 유지됐으나, 숙박음식업은 크게 부진했다.

**산업별 취업자 증감**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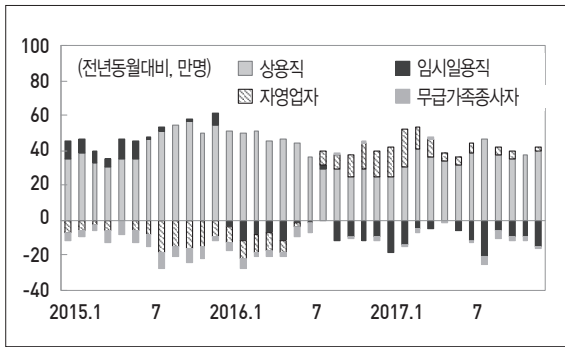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제조업	15.6	-0.5	-1.2
건설업	2.7	2.2	11.5
서비스업	25.1	33.9	20.6
보건·복지	7.7	8.2	6.2
교육	1.1	2.8	4.8
공공행정	-2.1	5.7	5.2
숙박음식	8.2	9.8	0.3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용직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됐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도 2016년 49.5%에서 소폭 증가한 50.1%를 기록했다. 일용직은 건설업 호조로 증가했고, 임시직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증가세로 전환됐다.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증감** (단위: 만명)

구분	2015	2016	2017
임금 근로자	48.7	31.7	26.0
상용직	43.2	38.6	36.1
임시직	5.4	1.8	-13.1
일용직	0.1	-8.8	3.0
비임금 근로자	-15.1	-1.8	5.7
자영업자	-8.9	0.7	7.2
무급가족종사자	-6.1	-2.5	-1.5



2017년 고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양적으로는 개선됐으나 질적으로는 미흡했다. 중국 등과의 통상협안, 구조조정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추경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취업자는 32만 명 증가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많이 늘어났고, 고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남성과의 격차도 2016년 20.9%포인트에서 20.6%포인트로 소폭 개선됐다.

질적 측면에서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건설업 일용직과 영세 자영업자가 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한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청년의 경우에도 20대 후반 인구 증가로 구직활동이 늘었으나, 기업들의 신규채용이 감소함에 따라 높은 실업률이 지속됐다.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는 2016년 대비 1.9% 상승하며 물가안정 목표인 2% 수준에 근접한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국제유가 및 농축수산물가격 상승 등 공급 측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이었다. 반면 수요 측 물가압력을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은 국내경기의 회복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1%대 중반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가격이 기상 악화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업제품가격은 국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비,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소비자물가	2.2	1.3	1.3	0.7	1.0	1.9
생활물가	1.7	0.7	0.8	-0.2	0.7	2.5
근원물가	1.6	1.6	2.0	2.2	1.6	1.5
농산물·석유류제외	1.6	1.6	2.0	2.2	1.6	1.5
식료품·에너지제외	1.52	1.5	1.7	2.4	1.9	1.5

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상승으로 전환했고, 전기·수도·가스 요금은 2016년 말 전기료 인하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1.4% 하락했다. 서비스요금은 2016년에 비해 오름폭이 다소 축소됐다. 이는 개인서비스요금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집세 및 공공서비스요금 상승세가 둔화했기 때문이다.

주택매매가격은 연중 1.5% 상승해 2016년에 비해 오름세가 확대됐다. 수도권이 높은 오름세를 나타낸 반면 비수도권은 입주물량 증가 및 지역경기 부진 등으로 낮은 오름세를 나타내며 지역별 차별화가 심화했다. 주택 전·월세가격은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2016년보다 약세를 나타냈다.

**부동산가격 상승률** (전기말월대비, 단위: %)

구분	2016	2017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주택매매가격	0.7	1.5	0.1	0.5	0.6	0.4
주택전세가격	1.3	0.6	0.1	0.2	0.2	0.1
주택월세가격	-0.2	-0.3	0.0	-0.1	-0.1	-0.1

**■ 국제수지 및 수출입**

2017년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를 지속했으나 흑자 규모는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2016년에 비해 감소했다. 상품수지는 세계 수입수요 증가 및 주력 품목의 수출 여건 개선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늘면서 1천19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연도별 경상수지** (억달러)

구분	2015	2016	2017
경상수지	1059.4	992.4	784.6
상품수지	1222.7	1189.0	1198.9
수출	5428.8	5119.5	5773.8
수입	4206.1	3930.5	4574.9
서비스수지	-149.2	-177.4	-344.7
분원소득수지	35.7	38.5	1.2
이전소득수지	-49.9	-57.7	-70.8

수출(통관 기준)은 5천737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6년 대비 15.8% 증가했다. 반도체와 OLED 등 IT 제품 수출이 글로벌 시장 호조를 바탕으로 크게 증가했다.

비IT 제품 수출은 선박부품이 고가의 해양플랜트 인도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석유제품·항공품·철강 등도 물량과 단가 모두 개선되면서 호조를 보였다. 다만 무선통신기기는 해외생산 확대 및 경쟁 심화로, 자동차는 부품 수출 부진으로 각각 감소세가 지속됐다.

수입(통관 기준)은 4천785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6년 대비 17.8% 증가했다. 원자재 수입은 원유도입단가 상승에 따라 원유·석유제품·가스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본재도 수출 및 설비투자 호조에 힘입어 반도체 제조장비를 중심으로 대부분 품목이 증가했다. 소비자재 수입은 직접소비재 및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주요 품목별 수출**

(단위: %)

구분	2016		2017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IT 제품	-6.0	32.8	21.6	34.4
반도체	-1.0	12.7	60.2	17.5
무선통신기기	-14.3	5.3	-22.7	3.5
디스플레이패널	-15.5	5.1	9.0	4.8
비IT 제품	-5.9	67.2	13.0	65.6
자동차	-8.8	13.1	-0.8	11.1
석유제품	-17.2	5.4	32.2	6.2
철강·금속제품	-3.5	8.1	17.4	8.2
선박	-13.7	6.8	23.6	7.2
총수출*	-5.9	[4,954]	15.8	[5,737]

주: ( ) 내는 수출금액(억 달러), 소유권 변동을 기준으로 하는 '연도별 경상수지' 상의 수출과 차이가 있음

**주요 품목별 수입**

(단위: %)

구분	2016		2017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원자재	-12.8	47.0	22.0	48.7
자본재	-2.0	36.4	16.2	35.9
반도체	-3.0	20.9	12.9	20.0
무선통신기기	-2.6	11.8	31.9	13.2
디스플레이패널	7.5	2.2	120.8	4.1
소비재	1.0	16.6	9.2	15.4
총수입	-6.9	[4,062]	17.8	[4,785]

주: ( ) 내는 수출금액(억 달러), 소유권 변동을 기준으로 하는 '경상수지 요약표' 상의 수출과 차이가 있음

서비스수지는 2016년에 비해 적자 규모가 크게 늘었다. 여행수지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172억 달러, 운송수지는 국내 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5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본원소득수지는 국내기업의 배당성향 강화와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국외배당지급이 늘어남에 따라 흑자 규모가 1억 달러로 축소됐다. 이진소득수지는 7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 금융시장**

**(1) 금리**

국고채(3년) 금리는 6월 중순 이후 국내외 통화정책의 기조 변화 가능성 부각 등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10월 들어 한국은행의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등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10월 하순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채권 발행물량 조절 및 기준금리 인상 효과 선반영 등으로 급등세가 진정됐고, 11월 30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는 점진적인 추가 인상 기대가 형성되며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통화안정증권(91일) 금리는 장기금리 상승,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9월 하순부터 빠르게 상승하다가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채 신용스프레드는 기업실적 개선 기대 및 금리 메리트 부각 등에 따라 축소됐다.

은행 여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다가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은행 여수신금리**

(신규 취급액 기준 연%, %)

구분	2016	2017			
	12월	3월	6월	9월	12월
여신금리	3.44	3.48	3.44	3.46	3.62
기업대출금리	3.54	3.53	3.45	3.48	3.64
가계대출금리	3.29	3.43	3.41	3.41	3.61
수신금리	1.56	1.49	1.49	1.53	1.81
여수신금리차	1.88	1.99	1.95	1.93	1.81

**(2) 자본시장**

코스피지수는 상반기 중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기업이익 증가 전망,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 등으로 크게 상승했다. 7월 말 이후 차익실현과 북한 리스크 등으로 약세를 보였으나 10월 들어서는 북한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 완화 및 기업실적 호조 등으로 다시 상승해 11월 3일 사상 최고치인 2,558을 기록했다. 이후 차익실현 등으로 약세를 보여 연말 코스피지수는 2016년 말 대비 21.8% 상승한 2,467로 마감됐다.

코스닥지수는 10월까지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다 11월 초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급등세를 나타냈다. 연말 코스닥지수는 2016년 말 대비 26.4% 상승한 798을 기록했다.

**(3) 금융기관 여수신**

은행 수신은 2016년과 비슷한 폭으로 증가했다. 정기예금 및 시장성 수신은 예금금리 상향 조정, 바젤Ⅲ 단기유동성 지표인 LCR(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산정 기준 강화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 그러나 수시입출식예금 등 대기성 자금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됐다.

비은행부문에서는 MMF와 채권형 펀드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유 기회비용 증가 및 채권평가손실 발생 우려 등으로 부진해 자산운용사 수신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됐다. 반면 신용협동기구 등 예금취급기관 수신은 금리 메리트 등으로 증가 폭이 다소 확대됐다.

금융권 기업대출은 2016년보다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 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이 경기회복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44조원 늘어나 증가 폭이 확대됐다. 다만 대기업대출은 내부 여유자금 증가에 따른 대출상환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됐다. 한편 비은행 기업대출은 신용협동기구를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분 제외)은 43조3천억원 늘어나 2016년보다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및 가계대출관리대책, 기 분양아파트 준공에 따른 중도금 상환, 신규분양 축소 등에 기인했다. 비은행 금융기관 가계대출도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비은행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 등이 도입되면서 신용협동기구와 보험기관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 금융기관 대출

(증감액 기준, 단위: 조원)

구분	2016	2017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은행대출	77.5	83.6	13.3	18.7	31.0	20.7
기업	23.9	40.4	12.2	6.7	16.0	5.4
대기업	-9.9	-3.7	1.6	-2.9	0.8	-3.1
중소기업	33.8	44.0	10.6	9.6	15.2	8.6
가계	53.7	43.3	1.1	12.0	15.0	15.2
비은행대출						
기업	30.0	41.8	8.4	10.9	11.0	11.5
가계	78.2	57.0	15.2	14.9	13.3	13.6
신용협동기구	38.0	19.8	6.3	5.7	3.4	4.3
보험기관	9.6	6.3	0.8	1.4	1.4	2.8
기타금융중개회사	17.7	19.9	5.4	7.0	3.6	4.0

\* 공공 및 기타대출 포함,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기관 기준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보험기관, 연금기금, 예산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 금융중개회사 등 기준

## ■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연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 수출 호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3월 말까지 상당 폭 하락했다. 이후 북한 관련 리스크 전개 상황, 미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기대 변화 등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들어 북한 리스크 완화, 미 달러화 약세 지속, 국내경제의 견실한 성장세 등으로 하락세로 전환했고 연말에는 연중 최저치인 1,070.5원을 기록했다. 2017년 중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는 2016년 말 대비 12.8% 상승했다.

한편 원/엔 환율(100엔당)은 미 연준 금리 인상 기대변화와 북한 리스크 등에 영향을 받으며 등락을 지속하다 10월 들어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했다. 2017년 말 원화의 엔화에 대한 가치는 100엔당 949.2원으로 2016년 말 대비 9.1%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일중 및 전일 대비 변동 폭은 연평균 각각 5.5원, 4.4원을 기록해 2016년(각각 7.5원 및 6.0원)에 비해 축소됐다.

외환스와프레이트(3개월물)는 외화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2016년 말 대비 0.61%포인트 하락한 -0.63%를 기록했다. 통화스와프금리(3년물)는 경제지표 호조 등에 따른 국고채 금리 상승 등으로 2016년 말 대비 0.37%포인트 상승한 1.57%를 기록했다.

# 2017년 경제성장

## 개 관

2017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16년 대비 3.1% 증가했다. 세계 경제 개선과 IT 업종 호조 등에 따른 투자 회복세에 힘입어 2016년보다 증가세가 확대됐다.

생산 측면에서는 농림업이 증가세로 전환된 데 이어 제조업은 2016년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됐으며, 건설업도 7.1% 증가하며 회복세가 지속됐다. 다만 서비스업은 2016년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민간소비에서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정부 소비는 감소해 최종소비 증가세는 2016년보다 둔화했다. 투자는 IT 업종 호조 등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크게 확대됐으며, 건설투자도 양호한 회복세가 지속됐다. 수출은 상품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서비스업 수출 부진 등으로 총수출 증가폭은 2016년 대비 소폭 둔화했다.

##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증감률

(201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구분	연간		2016° (전기대비)				2017° (전년동기대비)			
	2016	2017°	1/4	2/4	3/4	4/4	1/4	2/4	3/4	4/4
국내총생산 (GDP)	2.9	3.1	1.0	0.6	1.4	-0.2	2.9	2.8	3.8	2.8
농림어업	-2.8	0.3	3.9	-0.3	-1.8	0.2	-1.9	0.5	0.4	1.5
제조업	2.4	4.4	1.7	-0.1	2.7	-1.7	4.8	3.6	6.4	2.7
건설업	10.1	7.1	4.8	-1.6	1.0	-1.6	12.4	8.3	7.1	2.7
서비스업	2.5	2.1	0.4	0.7	1.0	0.3	1.7	1.8	2.5	2.4
민간소비	2.5	2.6	0.5	1.0	0.8	1.0	2.1	2.4	2.6	3.4
정부소비	4.5	3.4	0.6	1.2	1.9	0.5	2.4	2.8	4.3	4.1
건설투자	10.3	7.6	4.2	0.9	1.1	-2.3	11.3	8.5	8.0	3.8
설비투자	-1.0	14.6	4.5	4.3	0.2	-0.7	16.1	17.9	16.3	8.6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3.5	3.0	0.3	0.5	1.5	1.1	3.2	2.2	2.9	3.5
수출	2.6	1.9	2.1	-2.7	5.6	-5.3	3.7	0.3	4.4	-0.6
수입	4.7	7.0	4.9	-1.0	3.2	-2.9	10.1	6.6	7.4	4.1
국민총소득 (GNI)	4.2	3.1	2.3	-0.6	2.4	-1.2	2.3	1.8	5.0	3.0

주: 계절조정계열은 전기대비 증감률, 원계열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17년 1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1.0% 증가(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생산 측면에서는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이 모두 전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지출 측면에서는 건설, 설비투자가 크게 늘었다. 민간·정부 소비,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등도 양호한 증가세가 지속됐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2.3% 증가(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2017년 2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 증가(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생산측면에서는 서비스업이 증가했으나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은 감소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 모두 증가세가 확대됐고, 설비투자도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다만 건설투자 증가세는 전 분기 대비 둔화했으며, 실질 GNI는 전기 대비 0.6% 감소(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2017년 3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1.4% 증가(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생산 측면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이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농림어업은 감소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정부 소비와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확대됐으며, 민간 소비